



04



# PUBLIC DESIGN

김수민 김정진 김효중 | M M M

김석훈 여인성 | 숨, 속 놀이터



074



김수민 김정진 김효중

sumin9062@naver.com

1995\_jin@naver.com

khj950916@naver.com



# M M M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환경 공공 기획물이다. 2019 환경그린디자인학과/환경원예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의 주제인 '미니멀리즘'의 해석을 확률로서 접근했다. 확률을 통해 뽑혀지는 캡슐 안에는 5가지의 해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하루의 고민을 덜어낸다. 그것은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미니멀라이프'의 지향점이다. 기획물을 통해 체험자들은 하루를 더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는 정신적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이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캡슐 하나를 열어보자."

075





076



미니멀리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미니멀리즘을 추상적 표현 대신 '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미니멀리즘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미니멀리즘을 '확률'로 해석하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을 줄이는 것, 고민을 하는 확률을 줄이는 것이 미니멀리즘의 궁극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였다.



#### 확률의 사전적 정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이 확률에 근거해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사건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현 시켜줄 오브제가 바로 '캡슐 머신'이다.



### 미니멀리즘 패턴

모티브는 Blossom이다. 우리의 작품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작품이 전시되는 4월은 꽃이 만발하는 시기로 세상에 꽃이 피는 기간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소통을 꽃피우고 싶었다.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므로 그 의미를 이어받아 패턴 디자인을 시작했다.

최소한의 색을 사용하여 꽃을 표현하려 하였고 최소한의 획으로 디자인을 하였다. 그 결과 위의 다섯 가지 패턴으로 추려냈다.



다섯 가지의 해답

세상엔 많은 고민들과 많은 해답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다섯 가지로 줄였다. 우리가 선택한 다섯 개의 해답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기 보다 많은 고민들의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답들을 정했다. 수많은 고민들 중 근본적 원인은 적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답으로 이 다섯 가지를 정해보았다.

로고 해석

사람들은 간혹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가시 같은 말들을 로고의 양측에 있는 가시 모양으로 표현을 했고, 그 사이에 상처를 메꿔주는 소통의 매개체를 이용해 연결해 주었으며 그 결과, 이와 같은 로고가 탄생하게 되었다.



상처를 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통' 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은 사람을 이어주고 이어진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고민을 해결 한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로고이며 작품의 목표이다.





079



### 작품 감상

먼저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캡슐 머신 안에 있는 캡슐을 뽑는다. 캡슐에 적혀있던 문구를 확인한 후 고민에 대입해 본다. 여기까지 일반 캡슐 머신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뽑기와는 다르다.  
뽑았던 캡슐의 문구 대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적고 캡슐 안에 넣는다.

뽑았던 캡슐을 다시 캡슐 머신 안으로 넣어 다른사람들이 뽑을 수 있게 하며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081

작품을 체험한 후의 느낌이 허무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품의 의도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고민들의 답은 허무한 곳에서 풀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심에 소통이 있다.  
무거운 고민도 해결하는 방법은 허무하게 가벼운 해결 방법일 수도 있다.



082



김석훈

@kim\_seok\_hun  
bbab4906@naver.com



여인성

@yeo\_is  
cammt147@gmail.com



# 숨 속, 놀이터

미니멀리즘이란 필요한 요소만 남겨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숨'이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중점을 두어 미세먼지로 인해 마음껏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식물이 어우러진 숲,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083





---

CONCEPT

숨 속, 놀이터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중점을 두어 미세먼지로 인해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공간을 하나의 숲처럼 조성하여 그 속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한다.

---

TARGET

유아 (만 6세까지의 아동)

아동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장기간의 미세먼지 노출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084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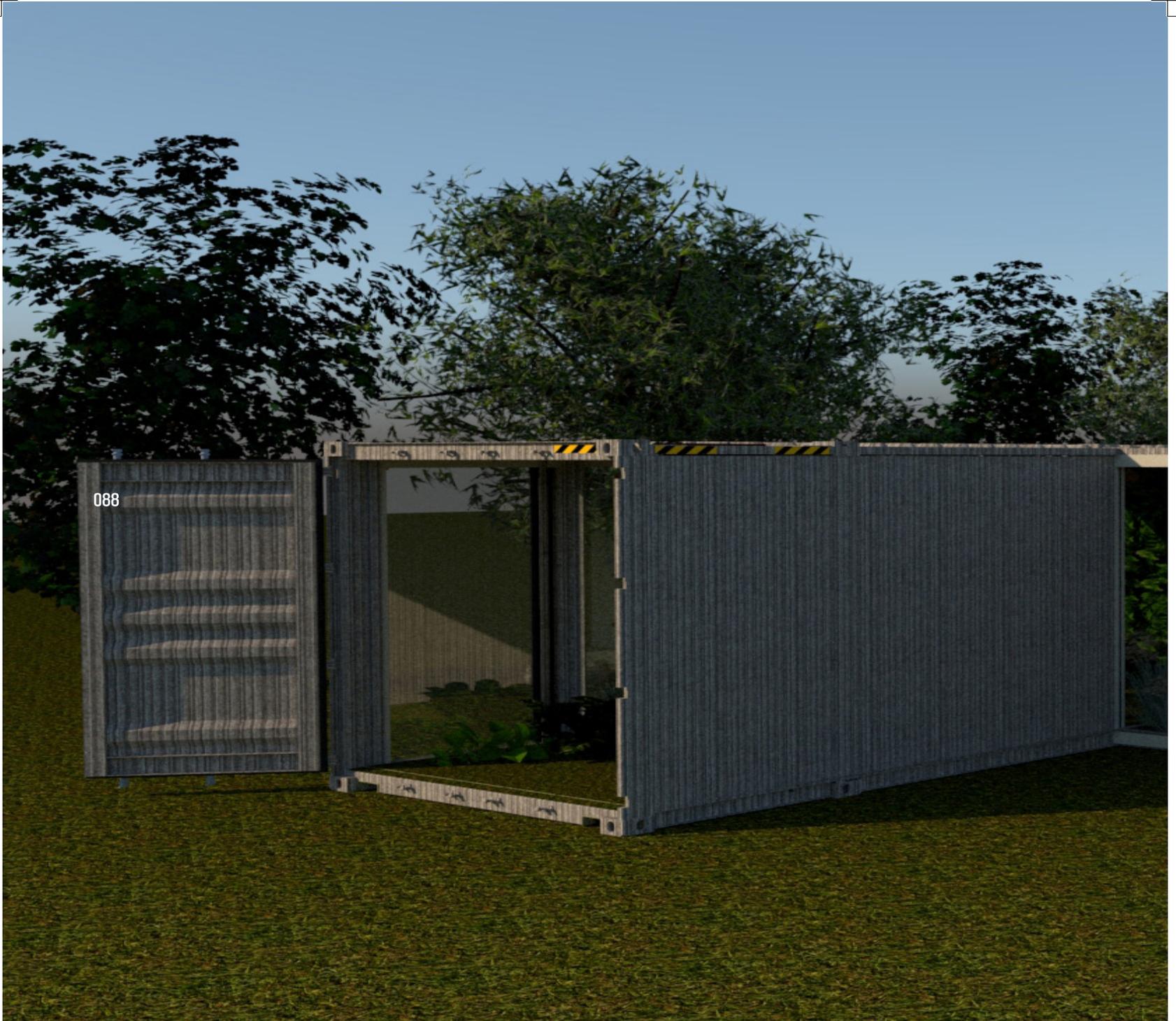


#### 놀이공간의 모습

식물과 어우러진 놀이터 공간은 기존에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아이들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아이들이 직접 매달리거나 자연스럽게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나무를 설치하였으며 갈대와 같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여 촉감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088



유기적인 형태와 자연의 요소를 결합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였다.  
공간의 형태는 2개의 컨테이너를 연결해 첫 번째 컨테이너는 식물 위주의 공간과 다른 컨테이너는 식물과 어우러진 놀이터로 구성하였다.

식물이 아이들에게 주는 정서적, 신체적 효과는 대단하다. 숲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해 점차 숲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 가고 있다.



05



# FLORAL DESIGN

박근아 | Silent Jungle

정유라 | ALL OF MY WEDDING

박정민 | FLOWERS

윤송은 | 도花지

신지윤 | COEXISTENT OF TWO



092



박근혜

rmsdk1215@naver.com



# Silent Jungle

자연과 관련된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자연과 공존해나가기를 추구, 자연이 주는 에너지와 생명력의 가치

이런 흐름은 자연에서 온 인류의 회귀본능이 아닐까?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주의를 표현한 공간장식

093





## CONCEPT

구엘공원 (Park Güell),  
'자연으로 회귀' 가우디의 생각이 집약된 건물이다.

주변의 환경과 혼연일체가 된 모습으로  
그저 자연의 일부인 듯,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건축물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

가우디는 진정한 독창성은 자연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려고 한 건축가이다.

인간을 위해 자연의 일부를 빌리지만 자연으로  
온 것이기에 존중을 잃지 않는다.

자연과 벗 삼은, 따듯하고 낭만적인,  
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정글,  
이 꿈같은 공간을 재해석한다.



문명은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자연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인간은 한 줌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다”

정글짐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조형 형태를 가진다.  
오브제의 모습은 인류의 삶을 표현한다.

모티브를 따온 정글짐은 단순성, 반복성, 직선 구조  
의 특성으로 인류 문명을 상징한다.

인류는 자연 속에서 탄생, 그 속에서 삶을 영위, 죽음으  
로써 자연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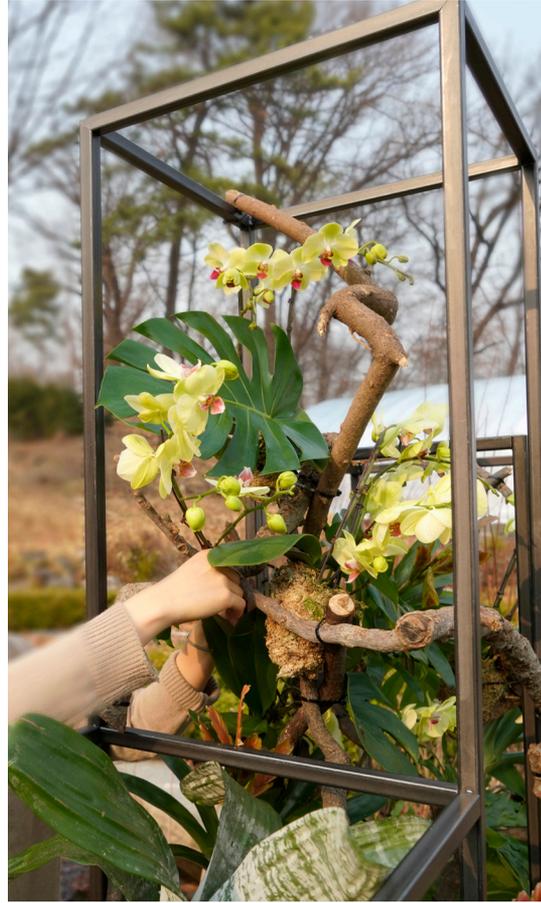
정글짐이 인류를 표현했다면, 인류를 감싸는 듯한 식  
물은 자연 속에서 공존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096





097





098



**박정민**

@jeongmin.\_.flower  
jeongm35@naver.com



# FLOWERS

[ Flow ] 몰입 (프랑스어)

[ -er ] 무엇을 하는 사람이나 도구, 기계

서로에게 몰입하는 사람들

더하여 화훼디자인의 본질적 요소인 꽃을 의미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다.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건 어떨까?

099









####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들

기계화로 인해 멀티태스킹이 난무하는 시대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미니멀라이프를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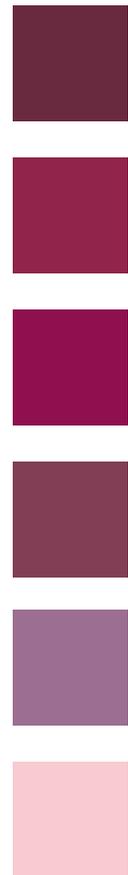
식사할 때 tv 보기, 카페에서 음악 들으며 공부하기 등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의 정보공해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때도 집중을 하지 못한다.

수시로 울려대는 메신저와 SNS 알림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한 공간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다.

소통이 단절되어가는 이러한 사회문제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작품에 표현했다.







105

Purple은 빨강과 파랑이 섞인 중성적인 색이며, 자연에서 보기 어려운 색으로 귀한 느낌을 준다.

대화는 남녀 구분 없이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  
또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소중한 순간이다.

Purple과 대화하는 모습이 서로 닮아 메인컬러로 정했다.



106



신지윤

@j\_yoon314

jyhin96@naver.com



# COEXISTENCE OF TWO

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하는데 그 중 거울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화려한 모습과 그에 반대로 자연스러운 모습, 여러가지의 모습 또한 자신이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이 라는 것을 나타낸 작품이다.

107





108





"한 작품 속 두가지 디자인" 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바라 보았을때 다양성, 양면성을 보여준다.



110



정유라

@u.\_\_rra\_flower

youra618@naver.com



# ALL OF MY WEDDING

결혼에서 미니멀리즘은 스몰웨딩이라고 많이 알고들 있다.

결혼의 주체인 신랑, 신부에게 집중한 디자이너이자 주체자를 돋보이게 하는 기능이다.

그들을 더 빛나게하며, 크고 화려한 남을 위한 결혼식이 아닌 오롯이 두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형식과 장식으로 디자인 했다.

'웨딩아치'로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영원성과 아름다움을 불어 넣어주고

또한 그에 맞는 소재의 색감과 모양 등을 고려했다.

형식과 사회적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주체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웨딩장식을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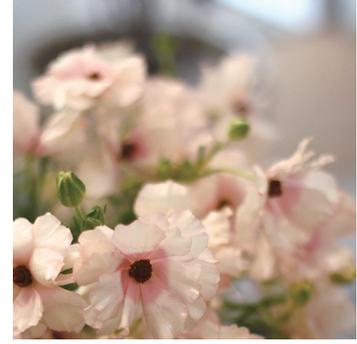
111





COLOR GUIDELINE  
**LIVING CORAL**

112





## DESIGNER





---

# LIVING CORAL FLOWER DESIGN

114





115





116



윤송은

@songeun insta

thddms879@naver.com



# 도花지

"도화지에 그려진 내면을 꽃으로 표현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텅 빈 도화지에 마음 속 불필요한 감정을 비워 보내고,

선과 색으로 채워진 내면을 꽃으로 표현 해본다.

117





118





Thema: Tischschmuck



Name : Yun Song Eun

Place : Seoul

Date : 2019. 0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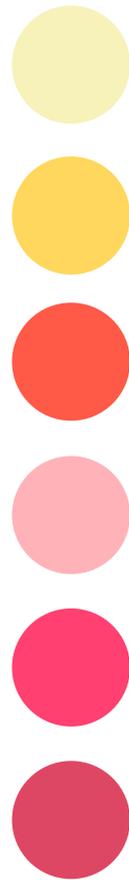
## Floral Drawing

: 선과 선이 만나 하나로 이어지고 색과 색이 만나 하나로 물들어진다.

선은 나무의 곡선으로 공간성을 표현하고 색채는 유사색상의 꽃으로 간결성을 표현한다.



120







06



# PRODUCT DESIGN

구민지 | 청춘의 시간을 담다; 달 & 차다

김정민 양윤지 | 자연을 데려오다. "자연공간"

류지예 | 알록델록



124



구민지

@nine99\_min

rnalswl2227@naver.com



# 청춘의 시간을 담다; 달 X 차다

[시간 그 무형의 아름다움, 유형의 디자인으로 태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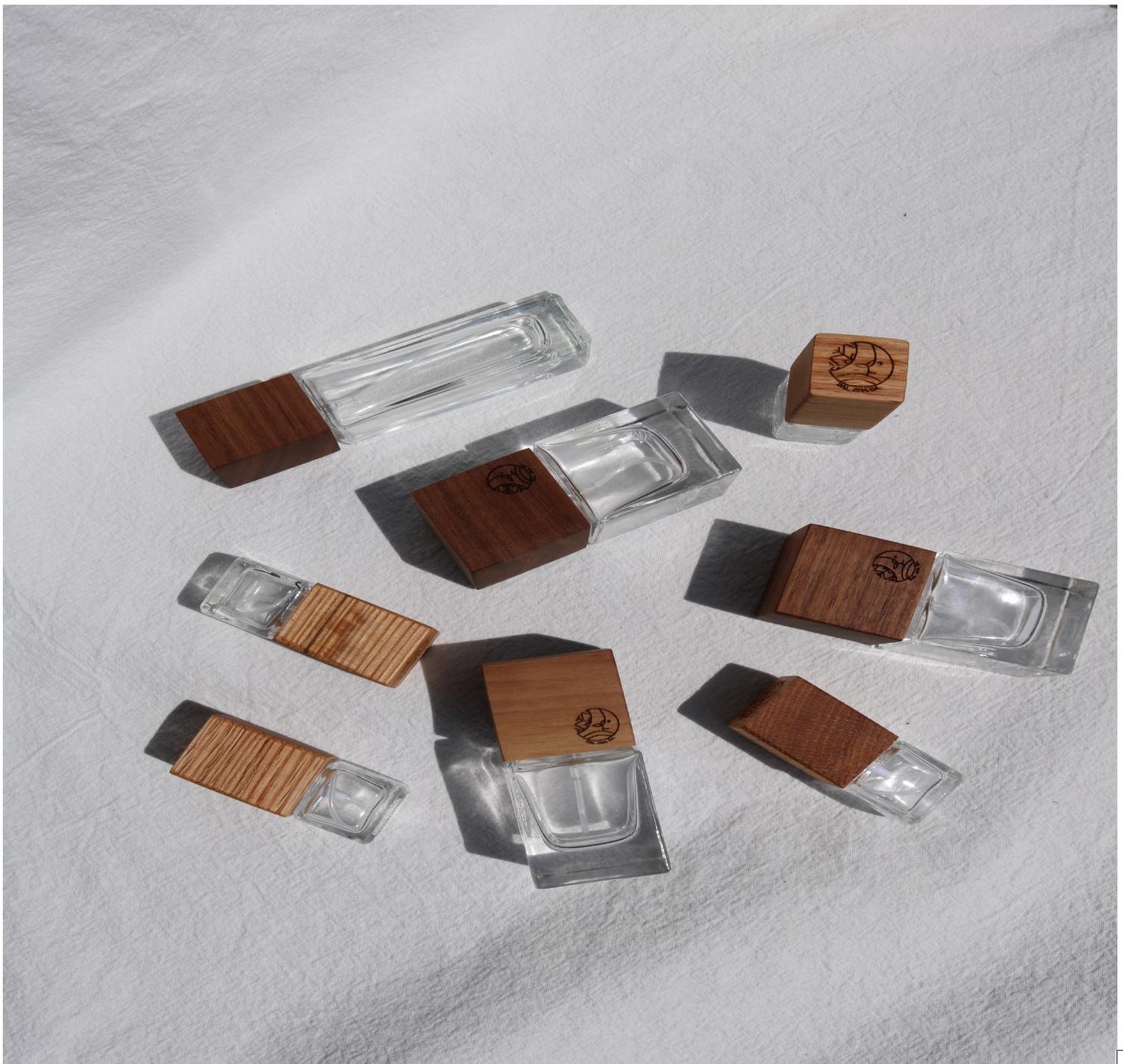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다시 돌아갈 수도 또 영원히 간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간을 잠시나마 머물게 할 순 없을까?

순간처럼 사라지는 시간을 향을 통해서나마 잠시 묶어두었다.

짊어서 그리고 서툴러서 아름다운 우리의 청춘[靑春].

125





126

**Brand Concept**

[靑春] : 푸른 봄, 차가운 겨울의 시간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시간

이따금 어떠한 냄새를 맡으면 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그는 향은 저마다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향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시간을 기록하려 하였다.  
향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큼 힘든,  
달고 차가운 청춘의 시간을 담고 싶었다.  
시간과 향이라는 무형의 아름다움을 유형의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Brand name**

[달X차다] : 달고 차다, 달이 차다

달고 차다

- 젊음이라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달콤한 시간
- 최대 취업난, 청년실업률 최고치, 7포 세대, 88세대 등 마주하는 현실의 차가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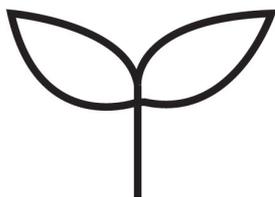
달이 차다

- 보름이 지나서 달이 차다, 달이 차듯 젊음의 시간도 가득 찰 수 있다.

127



새싹이 자라서 꽃이 피는 모습을 표현



봄의 상징  
희망을 의미하는 새싹



초승달부터  
차오르는 달



차가운 현실을  
의미하는 눈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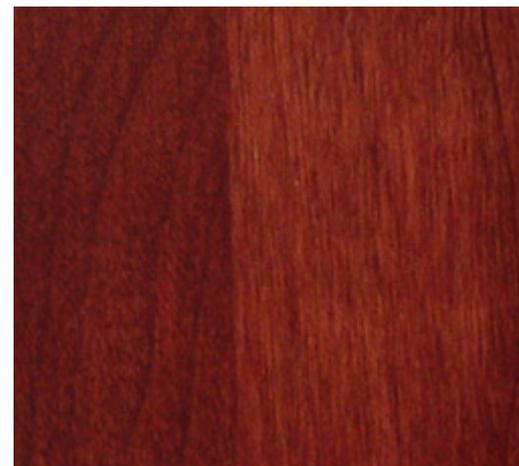




129

나무상자  
자연의 재료인 나무를 이용하여  
미니멀리즘의 본질을 표현하였다.  
따뜻한 느낌과 함께 나무의 무늬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체리우드  
(cherry blossom)  
난색의 체리 우드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비치우드  
(beechtree)  
흰색의 비치우드를 사용하여 색채대비를  
통한 울동감을 주었다.





130

### 직육면체의 바디

미니멀리즘의 특징인 입방체를 이용하여  
향수병과 뚜껑을 제작하였다.  
직육면체의 바디는 안정감 있는 구조로  
어디든 쉽게 놓을 수 있게 디자인  
위로 쌓아 올릴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 perfume kit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향만을 이용하여 매일 다른 나의 시간을  
직접 블렌딩 할 수 있는 perfume kit이다.





132



김정민

kimin456@naver.com



양윤지

lmkj22@naver.com



# 자연을 데려오다. "자연공간"

슈퍼노멀-中-

미니멀리즘이란 장기간 사용한 물건의 필연적인 형태

화분과 정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의 필연적인 형태,

화분과 정원의 미니멀리즘은 바로 자연이 아닐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연으로 자연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박하고 빠르게 변화는 사회 속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지친 청년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자연을 품은 공간으로 달래고자 합니다.

루세른은 자연을 품어내는 궁극적인 방법인 '자연' 그 자체를

데려와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루세른의 자연공간입니다.

133





**LUCERNE**  
A beautiful little nature for me





우리 모두가 꿈꾸고 생각하는 자연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린 저는 애니메이션 타잔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타잔을 보면서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밀림을 쏘다니는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자연공간은 밀림입니다.  
여러분의 자연공간은 무엇인가요.  
밀림, 초원, 사막 그 모든 곳이  
당신의 방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137



138





미니멀리즘이란  
어떠한 물건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형태이다.  
-슈퍼노멀 中-



140



류지예

@knowyes\_ryu

yjy0072@naver.com



# 알록델록

피곤한 하루 끝에 매일 써 내려가야 하는 일기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소중한 나의 하루는 기억되어야 하니까요.

빠르고 간편하지만 확실한 나의 알록달록한 데이 로그,

알록델록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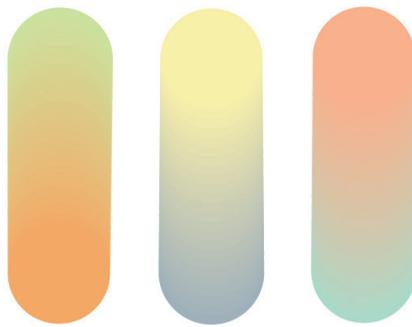
141





# 일기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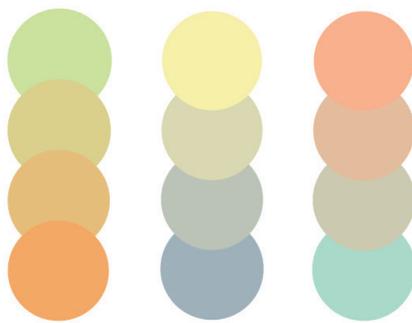
142



FEELING

WEATHER

SPEED



GOOD

HOT

FAST

SO SO

CALM

ORDINARY

BAD

COLD

SLOW



색깔만으로 기록하기에는 너무 벅찬 날에는  
글도 함께 기록해도 좋아요.

행복한 느낌의 초록색, 상기된 느낌의 주황색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  
재빠른 느낌의 빨간색, 느긋한 느낌의 하늘색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하루 색까지

아홉 가지 색으로 나의 하루를 기록할 수 있어요.



144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빠르게

게다가 하루 기록을 깜빡할 일도 없을 거예요.

매일 보는 달력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적어보세요. 방금 그 생각!  
하루를 기억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07



# SCULPTURE

김홍욱 | 내면(內面)



148



김홍욱

@hong\_woook

xxcxcx12@gmail.com



# 내면(內面)

미니멀리즘의 본질을 추구하는 정신을 인간에게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의 본질은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현대 사회 속 우리는 내면 속 '외로움' 이란 감정이 존재할 것이고 그 감정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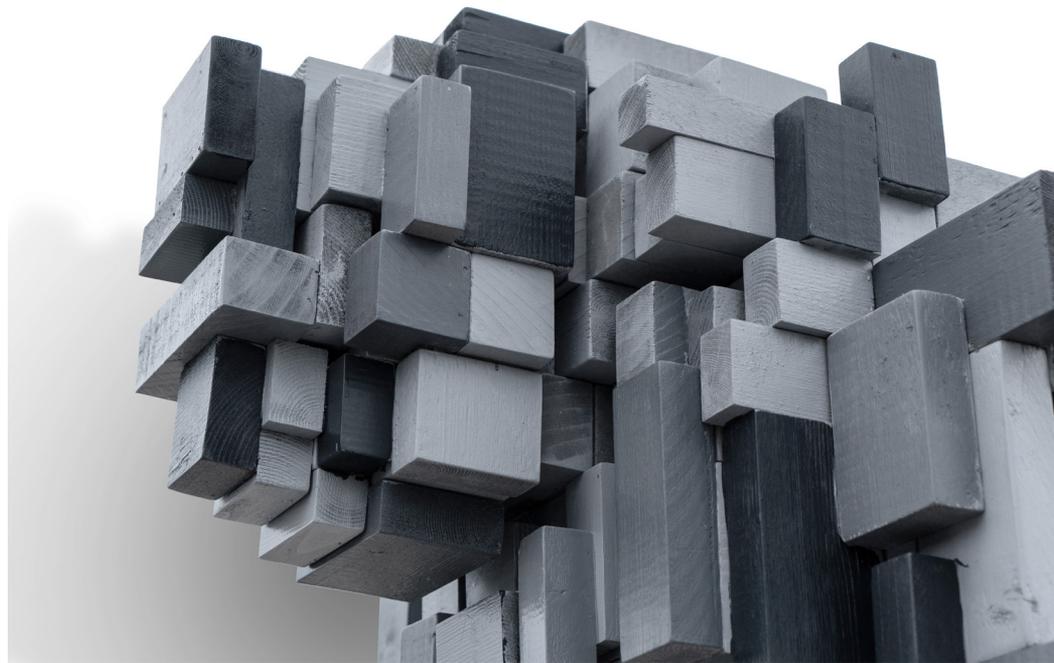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공감을 얻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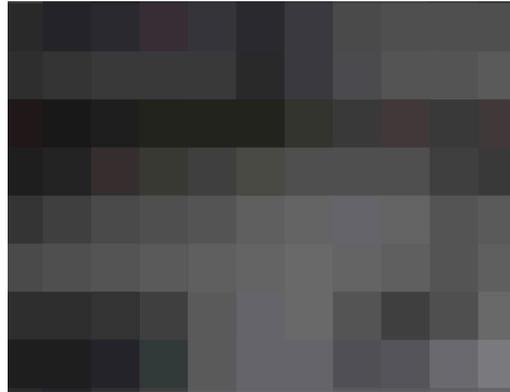
150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입방체를 목재로 표현  
단일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



2 X 2 각재  
2 X 4 각재  
2 X 6 각재  
3 X 6 연부합판  
3 X 6 삼부합판  
70 X 70 구조목  
90 X 38 구조목  
90 X 90 구조목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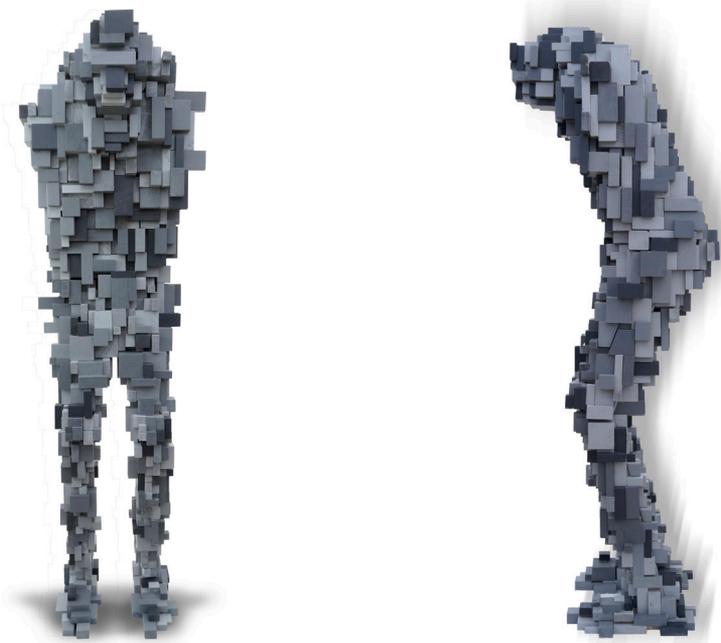
도장은 수성스테인(백색) 사용  
착색제(검정)와 조색 후 칠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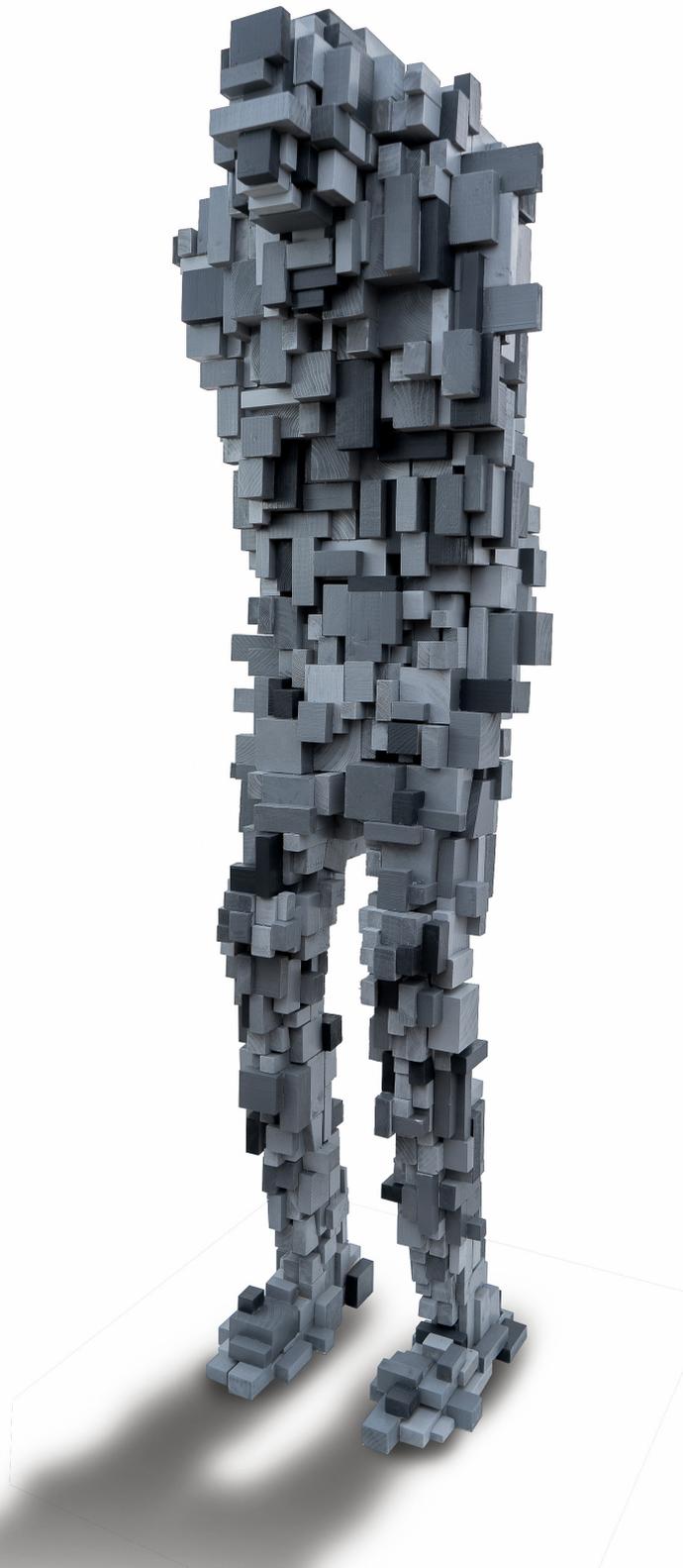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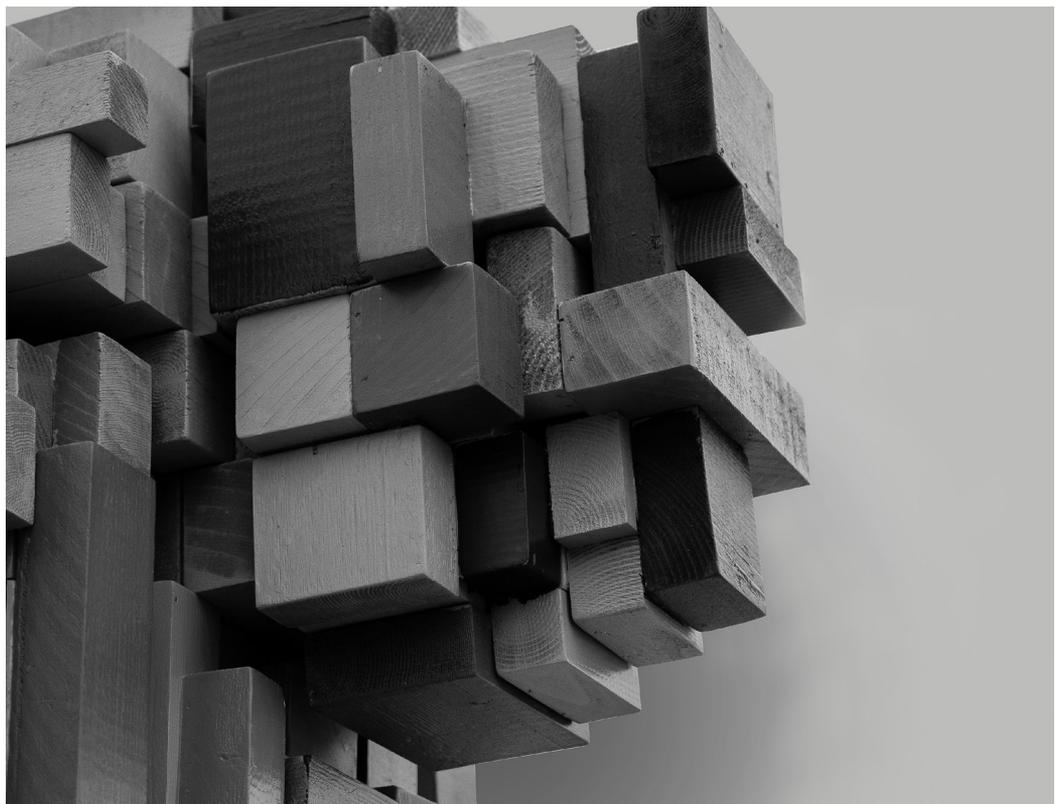
직선 형태의 사각 입방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지만  
무릎을 굽히고 있는 모습은 내면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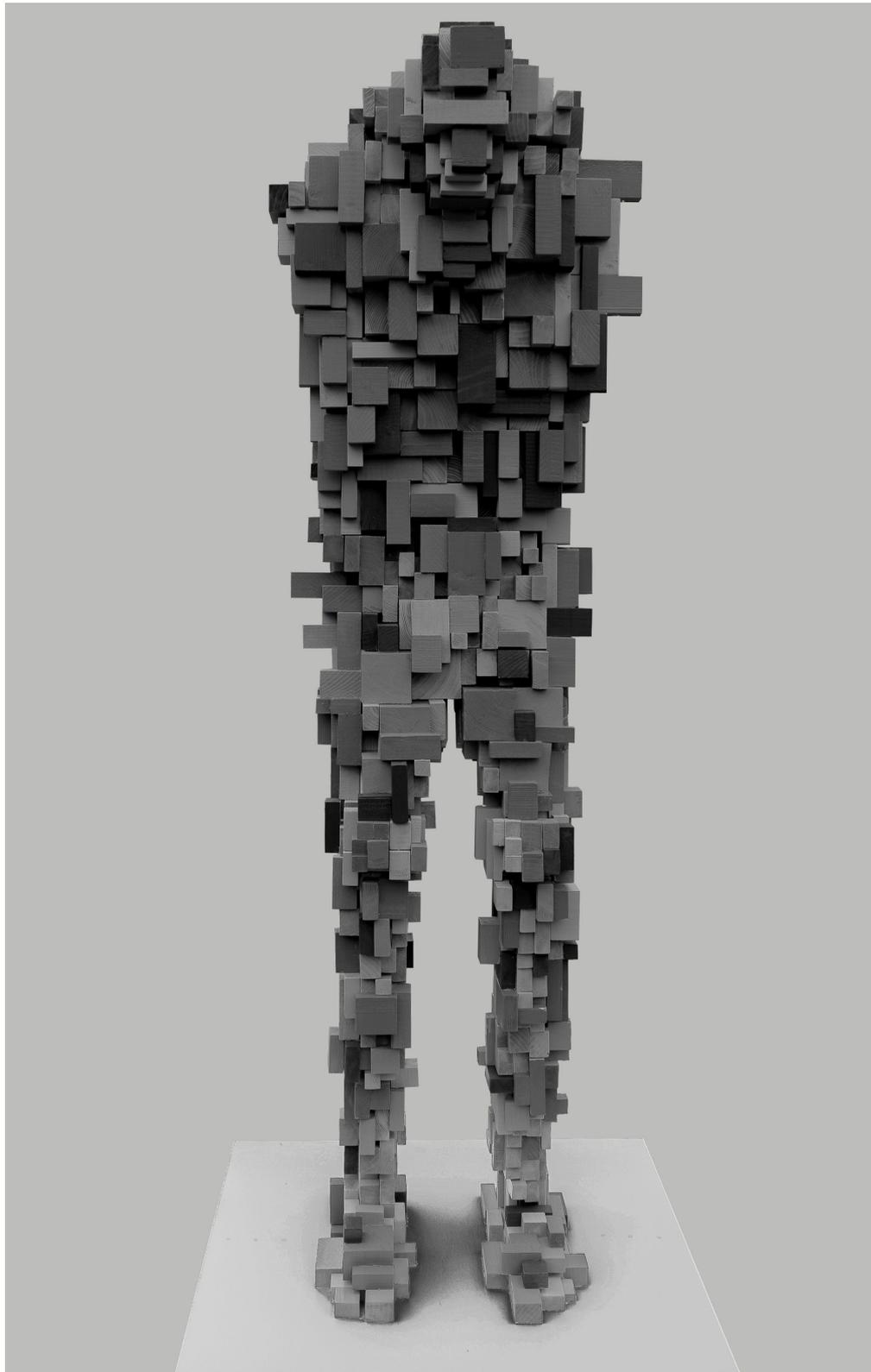






154





H : 2400 W : 910  
단위(mm)



**강영림**  
VISUAL DESIGN  
fjqm9468@naver.com



**구민지**  
PRODUCT DESIGN  
rnalswl2227@naver.com



**김석훈**  
PUBLIC DESIGN  
bbab4906@naver.com



**김수민**  
PUBLIC DESIGN  
sumin9062@naver.com



**김정민**  
PRODUCT DESIGN  
kimin456@naver.com



**김정진**  
PUBLIC DESIGN  
wjdws1774@naver.com



**김흥욱**  
SCULPTURE  
xxcxcx12@gmail.com



**김효중**  
PUBLIC DESIGN  
khj950916@naver.com



**류지예**  
PRODUCT DESIGN  
yjy0072@naver.com



**문경훈**  
VISUAL DESIGN  
rylynn0915@gmail.com



**박근아**  
FLORAL DESIGN  
rmsdk1215@naver.com



**박정민**  
FLORAL DESIGN  
jeongm35@naver.com



**신지윤**  
FLORAL DESIGN  
jyh96@naver.com



**양윤지**  
PRODUCT DESIGN  
lmkj22@naver.com



**여인성**  
PUBLIC DESIGN  
cammt147@gmail.com



**윤송은**  
FLORAL DESIGN  
thddms879@naver.com



**윤시원**  
DISPLAY  
siwne@naver.com



**이인기**  
VISUAL DESIGN  
703ingi@naver.com



**이지현**  
VISUAL DESIGN  
hyunnnny@gmail.com



**장문호**  
CAMPAIGN  
jmh2516@naver.com



**정유라**  
FLORAL DESIGN  
youra618@naver.com



**지민주**  
VISUAL DESIGN  
qldmq11@naver.com



류병렬  
전임교수  
Horticulture



김유선  
전임교수  
Color / Green Design



김명훈  
겸임교수  
Product Design



김색별  
멘토교수  
Floral Design



김진희  
멘토교수  
Public Design



김효식  
겸임교수  
Space Design





제19회 졸업작품 위원회

졸업작품 위원장	문경훈	
졸업작품 부위원장	구민지	
디자인	문경훈	이지현
디스플레이	윤시원	
총무	구민지	양윤지
사진	이인기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제 19회 졸업전시회  
 2019.04.22mon - 2019.04.27sat  
 우리은행 본점 은행사 박물관  
 (4호선 회현역 1번출구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 갤러리)

전시기획	김명훈
총괄	김유선
포스터	여인성